

沈翼雲 시의 구현양상 분석

심 의 식 *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淋漓紆餘한 일상의 형상화 |
| II. 身廢流離한 삶의 형상화 | V. 나오는 말 |
| III. 不順矩한 현실의 형상화 | |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문인 芝山 沈翼雲(1734-)의 한시의 구현 양상을 살핀 글이다. 심익운은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조좌랑에 임명될 만큼 재능이 뛰어났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先系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신으로 인륜을 어지럽혔다는 심한 질책과 함께 관직을 파직당하고 형의 죄에 연좌되어 유배지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작품 집으로는 유배 이전인 34세 때 詩·文만을 모아 엮은 2권 2책의 『百日集』이 남아있다. 현재 『百日詩集』에 남겨져 있는 詩 작품은 300여 편에 불과하지만 작가적 성취와 위상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身廢流離의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내적인 고통과 번민을 주변의 다양한 대상물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내면세계를 진정 어리게 표출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추구 할 수 있었다. 또한 한시의 작법의 이른바 규범, 법의 준수, 聲病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됨을 자각하고 주변의 소재를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본 세계를 우의적 수법을 통하여

* 용인정보고등학교 교사 / wnrekd@hanmail.net

비판하였다.

沈翼雲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추구했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맑고 흠뻑 젖어 넘치며 문장이 줄줄 풀리는 유창한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한 그는 ‘문학은 진리를 담아야 한다.’는 문학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범한 삶 속에서 훌륭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심익운, 백일집, 신평유리, 임리우여, 진정성

I. 들어가는 말

18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계질서의 변모와 함께 정치 문화 경제 방면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전개되었다. 다양성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시기 흐름에 따라 수많은 작가가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며 문학사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 시기이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沈翼雲 또한 18세기 후기의 문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다.¹⁾ 沈翼雲은 본관은 靑松, 자는 鵬如, 호는 芝山 또는 蓋耕堂이라 일렀다. 그의 성장과정²⁾은 상세하지 않으나 그의 글에 따르면 20대 초반 金厚哉(1712-?)와 洪伯孝(1723-?)에게 각각 시와 문을 배웠으며 兪漢雋(1732-1811)과 문학적 교분을 맺었다.³⁾ 21세가 되던 1754년에 진사가 되

1) 李奎象의 『并世才彥錄』에 徐命膺(1716-1787), 黃景源(1709-1787), 李用休(1708-1782), 李匡師(1705-1805), 朴趾源(1737-1812) 등과 문원록에 실려 있다.

2) 진재교, 「조선후기 현실주의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 『민족문학사강좌상』, 창작과비평사, 1995.; 김철범, 「芝山 沈翼雲의 삶과 文學」,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 태학사, 1996. 참조.

3) 沈翼雲, 『百日集』, 「兪汝成文集序」, “余之年二十三矣, 學爲詩於永嘉金公, 得爲文之術於洪伯孝……後四五年, 余廢而 伯孝顯於世, 永嘉爲宦不遂, 文章之道, 由是衰矣. 兪君汝成, 家居北山之陽, 讀書治文, 十有餘年, 乃與余遇”

고 26세에 정시 문과에 합격하여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⁴⁾ 그러나 이때 閔百祥은 沈翼雲이 역적이 된 沈益昌의 아들인 師淳의 양자로 입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淸職을 줄 수 없다고 반대하였다.⁵⁾ 그의 자리가 사대부들의 선망이 되었던 자리였던 때문에 그의 인사문제로 당시 조정에서는 적지 않은 분란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영조를 반대하여 역적으로 처벌된 沈益昌의 아들 沈師淳의 양자로 입적된 것이 계기가 되어 노론의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沈益昌의 문제로 집안이 폐족의 위기에 몰리자 沈一鎭은 1760(영조 36년)에 두 아들 翔雲과 翼雲과 함께 靑平尉 沈益顯과 淑明公主의 제사를 잇기 위한 명분으로 본래 繼子였던 師淳 생부인 沈重殷을 靑平尉의 후계로 바꾸는 單子를 血書로 올리게 되었다.⁶⁾ 그러자 우의정 閔百祥과 예조판서 鄭翬良이 이 일을 비난하였고, 沈翼雲도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씌으로써 인륜을 어지럽혔다는 심한 질책을 받았다.⁷⁾ 이로 인해 파직되어 한성 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身廢流離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엔 단호했던 영조도 영의정 洪鳳漢과 호조

4) 『英祖實錄』 卷94, 「35년 8월 丁亥」, “上御映花堂試士, 取沈翼雲等十六人.”

『사마방목』, 『문과방목』 참조.

5) 『英祖實錄』 卷94, 「35년 9월 己酉」, “吏曹判書閔百祥奏曰 頃有沈翼雲郎署差下之命, 而今方有窠, 臣欲奉行, 至於淸宦, 有難奉行. 上曰 何故. 百祥曰 益昌之孫也.”

6) 『英祖實錄』 卷95, 「36년 5월 甲子」, “禮曹判書鄭翬良, 陳沈一鎭母子, 以罷養事, 血書呈單, 又陳一鎭子翼雲斫指事.”

7) 『英祖實錄』 卷95, 「36년 5월 甲子」, “右議政閔百祥曰 世豈有神主罷養之事乎 上曰 金光進果賢矣, 只欲保父子之倫矣. 翬良曰 光進事雖賢 而錄用之教, 恐非國法. 外孫自有緣坐矣. 上曰 元景濂事, 極非矣. 木主有靈, 當何以爲心. 仍教曰 人倫一定之後, 不可更也. 戊申以後, 其弊已有, 而乙亥以後, 其弊益甚. 頃聞一事, 心自非之, 今聞沈師淳妻, 與一鎭血書, 不覺惻傷. 此後父子夫妻之間, 法外此舉, 一切嚴禁, 此等上言, 政院切勿例下, 雖或登聞呈單, 亦令該曹, 直爲勿施. 頃日金光進下教, 亦關後弊, 勿施 謹按一鎭, 卽師淳之養子, 師淳以逆昌之孫, 出繼爲靑平尉益顯之嫡孫, 沈氏一家, 以逆昌之累, 欲罷養師淳, 故師淳之妻, 與一鎭爲血書. ……人之無倫, 胡至於此極. 景濂以明彥之壻, 明彥追奪後, 離貳其已死之妻, 以繼妻之父, 爲前妻子之外祖, 其亦傷倫甚矣. 吁! 可歎也.”

판서 金相福의 간곡한 변호와 주장에 힘입어⁸⁾, 靑平尉와 淑明公主의 제사를 차마 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沈重殷을 靑平尉 후계로 인정하고, 沈一鎭을 석방하여 그 제사를 잇도록 허락하였다.⁹⁾ 流離에서 풀려난 그는 다시 복권되었으나, 형편이 그리 나아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775년 世孫[정조]이 대리 청정을 하였는데, 이때 부사직에 있던 그의 형 沈翔雲이 대리청정이 부적절하다는 글을 올렸다.¹⁰⁾ 이에 세손의 측근들은 세손을 온실의 나무에 비유한 것은 패역의 의도가 있다고 하였고, 영조는 그의 글을 패색하게 여겨 靑平尉 제사권을 박탈하였으며 1776년 3월 영조가 죽고 정조가 즉위하자 翔雲은 국문을 당하고 처형되었다. 沈翼雲은 형의 죄에 연좌되어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육지 상인들과 내통하여 서울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하여 다시 大靜縣으로 이배 되게 되었다.¹¹⁾ 이후 그는 이곳에서 일생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비상한 능력을 지녔으나 집안의 문제로 완전히 몰락한 채 이름도 없이 사라진

8) 『英祖實錄』 卷97, 「37년 6월 戊子」 참조. “鳳漢曰 以沈師淳爲廷輔第二子, 使翔雲爲靑平尉之奉祀孫, 師淳爲其班附, 則便易矣. 上曰 公主奉祀雖重, 人倫至重, 如是處之者, 非道理也.”

9) 『英祖實錄』 卷100, 「38년 12월 戊申」 참조. “正言金履禧疏論沈一鎭罷養之非, 上不納. 履禧遂登對自引曰 一鎭初不爲師淳之子則已矣, 旣爲其後則天倫已定. 渠當與師淳, 同被罷黜, 以保其父子之倫, 而免爲金光進之罪人可矣. 今乃降其所後父於班附, 納其本生親於禰位, 而渠則依然爲宗孫, 是乃以其父有累而絕之也. 使一鎭苟有秉彝之天, 當其入廟而將事也, 顧瞻俯仰, 能不怵惕而汗背乎.”

10) 『英祖實錄』 卷126, 「51년 12월 甲子」 참조. “朋黨之禍人國家, 厥惟舊矣……未知邸下之師傅, 可尊可敬者, 果堪以執經問難, 下車問疾乎? 未知邸下之賓僚, 果盡樸直少文而忠乎? 抑或浮華無實而佞乎? 出入書筵之臣, 果皆沈默畏愼, 不言溫室之樹乎? 邸下苟能博求真知實踐之士, 端良敦重之人, 置之左右前後, 以資啓沃, 以責輔導, 則庶幾爲進學之一助矣. 此今日急務也, 凡此八者, 雖若迂遠而陳腐, 然前五字譬則受病之本也, 後三字譬則對症之劑也.……令曰 疊累之種, 章奏條陳, 如是巧惡, 可謂益昌之孫矣.”

11) 『正祖實錄』 卷13, 「6년 정월 辛亥」, “判義禁洪樂性啓言 濟州御史別單中, 州城距船所未滿十里, 如趙貞喆 沈翼雲之逆孽, 締結陸商, 交通京信. 宜移配貞喆於旌義縣, 翼雲於大靜縣. 從之.”

『明義錄』 卷1. 참조.

것이다. 그의 작품집으로는 34세 때 詩·文만을 모아 엮은 2권 2책의 『百日集』이 남아있으며 그의 문학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도 잘 알려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의 존재가 희미해져 있다.¹²⁾ 현재 백일시집에 남겨져 있는 沈翼雲의 시는 삼백 십팔 수로 그 시가 쓰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自序에 의하면 甲戌年(1754)에 시작하여 丁亥年(1767)¹³⁾으로 편년체가 아니라 시체별로 五言古詩, 七言古詩, 歌曲, 五言律詩, 七言律詩, 五言絶句, 七言絶句의 순서로 나누어 그 작시 시기에 관계없이 실려 있다. 벼슬길에 나아가서 14년 동안의 비교적 젊은 시기에 써진 시가 대부분이며 1767년 유배지 이후의 시는 알 수가 없어서 그의 문학성이 어디에까지 도달했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沈翼雲이 시를 통하여 말하고자 했던 문학적 관점이나 주변 문인들이 남긴 평가를 살펴보고 그의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기준을 두고 선별된 시가 그의 전반적인 문학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된다. 그러나 이 기준이 沈翼雲이 주지했던 문학적 관점이라면, 또 당대 문인의 평가가 그의 시세계에 대하여 평가한 것이라면 오히려 시 전체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沈翼雲의 시가 젊은 나이에 쓰여진 300여 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주지하면서 부족하나마 시 세계의 특징과 구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身廢流離한 삶의 형상화

시인은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詩作의 원천으로 삼는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심익운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家禍로 인하여

12) 沈翼雲의 산문에 관한 논문은 김철범, 앞의 논문.; 김우정, 「심익운(沈翼雲)의 「說文」과 산문세계」,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이 있으며 안대회(「좌절한 영혼의 독설 : 沈翼雲의 소품」, 『문학과 경계』 5호, 문학과 경계, 2002.)가 沈翼雲의 산문 5편을 소개한 바 있다.

13) 자서 기록 : 갑술 1754년-정해 1767년, 14년

身廢流離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내적인 고통과 번민을 주변의 다양한 대상물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고,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내면세계를 진정 어리게 표현함으로써 시적 감수성을 자극한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잘 드러내는 시를 예로 든다.

述志 마음을 서술하다.

秋林日牢落	가을 숲은 날로 고적해지고
茲歲既云暮	올해는 이미 저물어가네.
平朝攬衣起	새벽에 옷깃 끌어당겨 일어나
曳杖聊散步	지팡이 끌고 산보를 나가네.
草虫多苦響	풀벌레 애처롭게 우는 소리 많고
山逕被霜露	산 좁은 길 서리를 맞았구나.
淒清樹樹陰	치량한 떡갈나무 숲 그늘 졌는데
時與涼風遇	때마침 서늘한 바람을 만났네.
徊徨入松梧	배회하다 소나무와 오동나무 숲에 들어가니
怵惕興緬慕	두려워하면서도 그리운 마음 일어나는구나.
一身集百尤	이 몸에 여러 가지 근심을 갖고 있으니
媿余忝先祖	나의 선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네.
鬱鬱王城西	울창한 한양 서쪽에
古宅鎖空中	옛 집은 비워져 자물쇠 채워 놓고
父子各奔竄	父子가 서로 인사치레도 없이 바삐 길 떠나니
道路脩且阻	길은 멀고 또 막혔구나.
茲土信薄瘠	이 땅은 진실로 척박하여
衣食並貧窶	옷과 음식은 가난하여 보잘 것 없고
非爲近京洛	서울이 가까운 곳이 아니라
所來爲丘墓	근처에는 무덤뿐이네
亦有數間屋	다만 몇 칸짜리 집이 있어
可以將孀孺	가히 아내와 어린아이 보전할 뿐이네.
麥清稻黃日	보리 푸르게 싹 트고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날이면
佳節自中古	옛날부터 좋은 날이 있었는데
春秋異時物	봄·가을 다른 물건으로

灑掃陳醴醕	물 뿌리고 쓸면서 제사음식을 마련하네.
舊業餘詩書	옛날 닦던 학업으로 시책과 서책이 남아 있어서
俛仰窺三五	황제의 일을 들여다보네
庶免要領絕	겨우 허리가 잘리는 형벌은 면하고
詎希剖刑補	무서운 형벌은 겨우 면했네.
畢命幸有依	명을 마칠 수 있도록 요행이 의지할 곳이 있어
空懷笑尔愈	헛되이 더욱 웃기만 하네.

이 시가 쓰여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관직에서 파직당하여 身廢流離의 처지에서 靑平尉와 淑明公主의 제사를 위해 복권된 시기¹⁴⁾로 추정된다. 가을이 지나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가는 잠을 잘 수가 없다. 밤새 뒤척이다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산길에 오른다. 새벽인데도 풀벌레는 애처로이 울고 좁은 산길은 서리까지 내려있다. 이리저리 배회하다 숲에 들어가 보니 저녁에도 잠을 못 이루게 했던 자신의 처지가 생각난다. 나의 선조의 잘못과 자신의 잘못이 重疊되면서 집을 급하게 잠그고 서로 도망갔던 옛 일이 떠오른다. 다행히 서울과 외딴 곳에 자리를 잡아서 목숨만 유지하는 처지로, 옛날의 좋았던 시절의 가을과 달리 지금은 쓸쓸하기만 하다. 그래도 형벌을 면하고 글을 지을 수 있다며 허탈하게 웃는다. 그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처지를 울분의 토로가 아닌 담담한 어조로 기술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진솔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樂遇生 낙우가 태어나다.

三十生男不是遲	서른에 아들을 낳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닌데
男生聰慧未云奇	충명한 아들 낳은 것을 좋다고 말할 수 없네.
且將愚魯看皮相	앞으로 어리석고 노둔한 모습 있는지 보려고
夜半還須取火知	한밤중 돌아와 촛불 들고 바라보네.

14) 각주 8번 참고.

사람들은 모두 자식이 태어나면 총명하게 바란다. 그런데 沈翼雲은 총명한 아이가 두렵다. 자신은 총명하여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장래가 촉망되었지만 오히려 지금 자신의 처지는 불우하다. 차라리 노둔하길 바라며 밤에 아들 방에 가서 총명함이 없기를 바라면서 촛불 들고 바라본다. 일견 덩덤한 듯하지만 내용을 곱씹어 보면 자신의 처지 때문에 총명한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뜻한 정이 묻어 나온다.

北風 북풍

陰陽無停機	음양은 정해진 틀이 없는데
天地亦已勞	세상살이 또한 힘들기 만하구나.
仲冬殺氣盛	한겨울 살기가 맹위를 떨치니
北風天爲高	북풍에 하늘은 높기만 하구나
六龍凍折鬚	육룡의 수염 얼어 끊어지고,
顧兔寒墮毛	토끼는 고개를 돌려 추위에 털을 늘어뜨리네.
不惜惡木死	악목이 죽는 것 아까운 것이 아니라
但恐貞松枯	다만 두려운 것은 울곧은 소나무 마를까 두렵다네.
仰天望北風	하늘 우러러 북풍을 바라보니,
佇立增鬱紆	우두커니 서있어 울적함만 더하네.
善惡本同情	선악은 본래 같은 마음이로되
厚薄我何殊	돈후하고 박함은 나에게 어떤 차이리오.

겨울이 다가와 차가운 북풍이 불어온다. 陰陽의 이치에 따라 돌아오는 계절이건만 세상살이가 힘드니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진다. 추위에 나쁜 나무가 죽기를 바랄 필요 없고 좋은 나무 마르는 것은 두려워 할 것이 없는데, 나의 마음속에 형성된 가치관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나의 고난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불우한 처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소망하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승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書示文房諸人 글을 써서 문방의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다.

天運有盛衰	하늘의 운은 성쇠가 있는 법이요
人事更變化	사람의 일이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艸木不自言	초목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지만
榮枯相代謝	피고 떨어짐에 서로 순서를 잃지 않는구나.
雪落在屋上	눈이 내리면 집 위에 있고
雪消泛屋下	눈이 녹으면 집 아래로 떨어지는 법.
年命異脩短	나이는 오래살고 단명 하는 차이가 있지만
形骸同假借	몸뚱이는 똑같이 잠시 빌린 것일 뿐
聖賢素患難	성현은 평소 근심이 많으나
愚賤安耕稼	우둔하고 비천한 사람은 농사일만을 편안하게 여길 따름이네.
吾與二三子	나와 친구들은
山中樂清夜	산중에 맑게 갠 밤을 즐긴다네.

하늘의 운에 성쇠가 있듯이 사람의 일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법이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이러한 이치를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에 처지에 비춰보니 세상이 달리 보인다. 눈이 오면 집 위에 높은 곳에 있지만 눈이 녹으면 집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의미 없게 생각하였던 비천한 삶이 오히려 아름답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자신의 처지의 비관이라기보다는 삶의 또 다른 방식을 찾아가는 즐거움을 추구하던 시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위의 시 4수는 그의 경험에 의한 실제 상황에서의 절박함을 그려낸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의 개인적인 심사가 잘 표현되어있다. 당시 18-19세기의 문인들은 고문의 유가적 세계상과 인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군상을 정립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정해진, 틀에 박힌, 질서화 된 인간상이 아닌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간상이 새로이 부각되게 되었다. 새로운 인간상의 정립을 위해 당시의 작가들이 자주 택한 방법은 살아있는 인물 형상에 대한 포착이었고, 이를 위해 특히 개인의 내면세계에 집중하고 개인적이고 신변잡기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중세사회가 요구한 전형적인 인간상을 탈피하였으며, 내면의 깊이와 진정한 개성을 소유한 인간의 발견이었다.¹⁵⁾ 沈翼雲 역시 꾸밈없는 자신의 진정성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Ⅲ. 不順矩한 현실의 형상화

沈翼雲의 삶은 앞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로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런 불편한 개인적인 심정이 다양한 삶의 모습과 만나면서 그의 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그의 自序에서

그 후 오류년 동안 우환을 만나 廢斥되어 곤궁한 삶을 살다보니 갑자기 망령되게도 스스로 放肆하여 억눌린 마음을 드러내게 되었고, 또한 거창한 말로써 세상을 놀래키기를 좋아하다보니 십 수 년간 지은 글이 거의 수천은 되었다. 옛 일에 상고하고 내 자신에게 징험해보니, 가만히 학문에 비유한다면 뜻은 있으되 自立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不惑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서 知天命하였다고 스스로 여기며, 耳順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서 마음가는대로 따라도 된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도 있었다. 앞뒤가 모순이 되고 좌우가 어그러져, 出入이 矩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많았다.¹⁶⁾

스스로를 곤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령되게 시를 쓰고 矩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비판정신이 깃들여져

15)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 태학사, 2003.

16) 沈翼雲, 『百日詩集』, 「序」, “後五六年, 遭罹憂患, 廢斥困窮, 遽妄自放肆, 以發其抑塞, 又好爲大言, 以驚世上, 下十數年所著錄篇章殆數千. 考之於古, 驗之於己, 竊臂之學焉, 則可謂有志 而不及立者也. 故未能不感而自以爲知命者有焉, 未能耳順, 而自以爲從心者有焉. 前後矛盾, 左右參差, 其出入而不順矩者多矣.”

있다.

羣鴈 여러 마리 기러기

羣鷄爭一虫	여러 마리 닭은 벌레 한 마리를 다투고,
羣狗爭一骨	여러 마리 개는 뼈 하나를 다투네.
豈如羣飛鴈	어찌 무리지어 날아가는 기러기가
小大不相失	크고 작은 것을 서로 잃지 않는 것 같으리오.
秋空碧無雲	가을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없는데
百十同羅列	열 마리 백 마리 같이 열을 짓는구나
前頭看後頭	선두는 뒤를 돌아보아,
齊首何乙乙	머리를 나란함이 어찌도 한결 같은지.
前行看後行	앞줄에서 뒷줄을 바라보니
并翼皆一一	날개를 같이 함이 어찌도 하나 같은지.
相呼下町畦	서로 부르며 발두둑으로 내려오니
及此稻梁節	벼와 기장이 알맞게 있어 먹기 좋은 곳이네.
所望同一飽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이 배 부르는 것이니,
尔我無爭奪	너와 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네.
寄言虞羅者	그물 놓는 이에게 부탁하오니,
義鳥莫輕殺	의좋은 기러기 가벼이 죽이지 마소

시의 소재로 기러기가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기러기의 이미지는 가을 하늘을 쓸쓸히 날아가거나 서로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는 이미지로 형상화 되어 있다. 위에 시에서는 규범을 벗어난 존재로, 자유로움 속에 무언의 질서가 있으며 서로 도와가며 배려하는 존재이다. 반면 닭과 개는 묶여있는 존재, 즉 사회규범이나 질서에 순종하기만 하는 예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에서 본연을 상실한 이익을 위해 다투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李奎象이 엮은 『并世才彦錄』¹⁷⁾에서 그의 詩를 찾을 수 있다.

17) 『并世才彦錄』, 『韓山世稿』 卷29.(李奎象 지음·민족문화사 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 병세재언록』, 창작과 비평사, 1997.)

飯牛置空桶	소 먹이고 놓아 둔 빈 여물통
羣犬來舐之	개떼가 달려와 핥는구나.
言犬且莫舐	개야 핥지 마라
此是牛之餘	이것은 소가 남긴 거란다.
聽之若無聞	들은 척 만 척
搖尾舐不休	꼬리 흔들며 쉼 없이 핥네.
見此起長歎	이것을 보고 장탄식 하나니
牛犬誠一流	소나 개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소에게 먹이려고 놓은 여물통에 먹다가 조금 남아있던 것을 재빠르게 개떼가 와서 먹는다. 이런 모습을 보니 저절로 탄식이 일어나고 소나 개나 음식을 탐하는 모습은 똑같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조그만 이익이 있으면 남의 것이든, 남는 것이든 가리지 않는 세태를 풍자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3수는 소재나 주제가 기존의 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18세기 이전 시기의 문학에서는 배워할 대상으로서의 모범이 존재하였다. 杜甫라든지 盛唐이라든지, 아니면 漢魏六朝詩라든지, 蘇東坡·黃山谷이라든지 배워야 할 모범으로 추앙되던 존재가 있던 시대였다. 그러나 18세기 변화를 주도한 시인들에 이르면 그러한 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배워야 할 대상을 설정하지 하지 않는다. 시에서의 기회를 피하지 말고 험한 것도 쓰고 기이한 것을 만들어내라[造險出奇]고 요구하면서 그 중국에는 시를 쓴 작가의 개성을 독자가 감지할 수 있게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에서 말하는 이른바 규범, 법의 준수, 聲病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됨을 자각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시되었다.¹⁸⁾ 沈翼雲의 시 또한 주변의 소재를 이용해서 자신이 바라본 세계를 우의적 방법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18) 안대회, 「18세기 漢詩史 序說」, 『韓國漢詩研究』 6호, 한국한시학회, 1998, pp.242-243. 참조.

鶴雀歎 새매와 참새를 노래하며

雀鷹養子高樹巔 참새와 새매가 높은 나무 끝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下有百尺清冷淵 백 척 아래에는 맑고 찬 연못이 있구나.
 江邊小兒捷猿獠 강가의 작은 아이 원숭이처럼 빨라서
 還取其子毀其巢 새매 새끼는 잡고 등지는 허물었네.
 鶴子纔生能食肉 새매의 새끼 겨우 살아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食肉不飽聲粥粥 먹은 고기 배부르지 않아 지저귀는 소리 힘이 없어
 朝窺屋瓦暮樹裡 아침에 기왓장 속, 저녁에는 나무 속 살피
 爭採雀兒哺鶴子 참새 새끼 찾아 새매 새끼를 먹이네.

(중략)

我謂兒童莫忽忽 아이에게 말하노니 실망하지 말아라.
 物命各各生死同 사물의 命은 제각각 이로니 죽고 사는 것이 한가지라
 鶴子雖樂雀子愁 새매 새끼는 비록 즐거우나 참새 새끼는 근심하니
 爾於鶴雀何恩讎 너는 새매와 참새 중 무엇에게 은혜이고 원수인가?
 先王網罟不得已 선왕은 그물 사용을 부득이 하시었으니
 何況奪彼以與此 어찌 하물며 저것을 빼앗아 이것에게 줘야하.
 嗚呼爭奪由強弱 오호라! 약하고 강한 것으로부터 다툼이
 古來幾許鶴與雀 새매와 참새 같음이 예로부터 얼마인가?

위의 시에서 아이가 길을 나섰다가 새매 새끼를 우연히 얻게 된다. 새매를 키우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참새 새끼를 찾아 헤매 다닌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은 것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아이는 기존의 사회질서에 따르던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때 기득권을 상징하는 새매와 소외계층을 의미하는 참새로 설정해 보면, 기득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백성은 그 반대급부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가치관에 의하면 신분과 지위의 격차는 당연한 것이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삶은 다 소중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IV. 淋漓紆餘한 일상의 형상화

18세기 한시사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일상생활 주변의 자질구레한 일들과 사물들을 소재로 포착하여 형상화하는 시 작품이 전면화 되고 다양화 되었다.¹⁹⁾ 沈翼雲도 일상의 주변에 관심을 갖고 시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이와 같은 특징을 드러내는 시를 예로 든다.

打稻 벼 타작

打稻集衆功	벼 타작하기 위해 여럿이 힘을 모으니
人多稻方好	사람들이 많으니 벼 타작하기 좋구나.
刈稻根莫長	벼를 베어 뿌리가 자라지 않게 하고
束稻頭莫倒	벼를 묶어 머리가 거꾸러지지 않게 하네.
腰鎌場上來	낫을 허리춤에 차고 마당으로 모여
齊聲同打稻	소리에 맞추어 벼 타작 같이 하네.
漸看四野中	천천히 사방의 들판을 바라보니
風吹黃雲掃	바람이 불어 누런 구름 쓸어버리네.
打稻雖云苦	벼 패는 일이 비록 괴롭다고는 하나
食稻腹中飽	벼를 먹으니 배속에 배부름이 있네.
問稻味何似	벼의 맛이 무엇과 비슷한가 물으니
不讓安期棗	어찌 대추벼 ²⁰⁾ 맛에 비할 소냐!
有田莫種玉	밭에 옥을 심지 말 것이니
種玉非我寶	옥을 심는다고 내 보배가 아니고,
有牛莫易龍	소를 용과 바꾸지 말 것이니
龍飛張五爪	용은 날아 갈 뿐이라네.

(후략)

19) 이경수, 『漢詩四家の 清代 시 수용 연구』, 태학사, 1999, pp.111-133. 참조.

20) “大棗稻 대초벼. 無芒色深赤, 耳甚鈍, 尤宜移秧.” (『산림경제』 제1권, 「치농(治農) 벼[稻]」)

觀打稻 벼 타작을 보며

種稻如種子	벼 파종하기는 자식 심듯이 하면서
打稻如打籬	벼 타작하기는 원수 때리는 듯 하는 구나.
非有愛憎殊	애증의 차이가 있음이 아니건만
生死自春秋	생사는 봄과 가을로 오네.
斯民亦云艱	농민들 또 힘들다 말하면서
筋力在田疇	힘들여 밭두둑에 머물러있네.
常恐租期近	항상 세금 내는 날 가까움을 두려워하니
勞勞敢言休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하네.
平生經濟志	평생 집안 꾸러갈 생각에
倚杖山逕幽	지팡이를 짚으면서 좁은 산길을 걸어가는구나.

첫 번째 시는 벼를 타작하는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벼 타작하는 듯이 상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벼 타작을 위해 여러 사람이 허리에 낫을 차고 모여서 소리에 맞추어 벼를 자르고 묶어서 세운 다음 마당에 모여서 벼를 타작한다. 작가가 벼 맛이 어떠한가를 물어보니 돌아오는 말은 늦게 수확하는 대추벼에 비할 거냐는 대답이 돌아온다. 이에 작가는 농사일이 힘들어도 일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며 아무리 옥을 땅에 심어봐야 소용없고 설사 용이라 한들 농사의 주된 인력인 소와는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잠긴다.

두 번째 시는 봄에 벼를 파종할 때는 자식을 키우듯이 정성들여 가꾸다가 가을이 돌아와서 벼 타작을 할 때는 원수같이 벼를 내리친다. 좋아하고 싫음의 표현이 아니건만 떨어지는 벼이삭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봄부터 힘들게 했던 농사가 가을이면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니 기쁨이 넘쳐난다. 타작을 하여 수익이 생겨 기쁨을 맞이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생기니 미뤄왔던 세금을 내야할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농사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지팡이 짚고 산언덕에 있는 논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된다.

위의 두 시에서 본 것처럼 沈翼雲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조금씩 새롭게 변모되었던 관념적이고 思辨化되었던 사유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에 대한 시각을 객관화함으로써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새롭게 부각되어 이 시기 작가들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심미관을 바탕으로 생활의 정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개별적인 형상에서도 각 국면들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묘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다.²¹⁾

田家行 농가의 노래

射干結子椒聊黑	射干이 열매를 맺고 산초나무 검고
田家九月收晚穀	전가에서는 구월에 늦 곡식을 거두네.
澗底束薪不盈擔	골짜기 깊은 곳 쉼나무 묶어 채우지 못하고
桑下汲井歸茅屋	뽕나무 아래 우물물을 길어 모옥으로 돌아오네.
少婦淘米大娘炊	작은 며느리는 쌀을 일고 큰 며느리는 불 때니
孤姥抱孫看飲食	외로운 시어미 손자를 안고 음식을 바라보네.
今年八月霜早落	금년 팔월은 서리가 일찍 내렸으나
幸有稌麥頗成熟	요행히 기장과 보리가 조금은 익었네.
牛兩角雞兩足	소는 뿔이 2개이고 닭은 다리가 2개니
雞足三十牛角六	닭은 15마리요 소는 3마리일세.
丁男朝出夜未歸	남자는 아침에 나가 밤이 되어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誰護高柵與卑櫪	누가 높은 울타리 낮은 말구유를 보호해주는가?
田家長物獨有此	농가의 필요한 물건 유독 이것이니
莫使狸虎來穿觸	이리나 호랑이가 와서 물어가지 않길 바라네
爲我謂狸虎雞雞猶可	
나를 위해 이리 호랑이에게 말해주거나 닭과 메추리 잡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慎莫傷三歲犢	3년 된 송아지는 잡아가지 말아주게

21) 진제교, 앞의 논문, pp.218-220. 참조.

겉으로 보이기엔 한가로운 전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남자는 아침에 나가 밤에도 돌아오지 못한다. 아마 오늘 밤에도 못 돌아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같은 짐승이 가축을 잡아갈까 염려된다. 그나마 닭과 메추리는 잡아가더라도 소를 잡아가면 두 명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손자까지 내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 작은 것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농민들의 삶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嗜虫 개무는 벌레

嗜虫名未見	개무는 벌레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橢黑類黍科	길쭉하고 검은 빛에 서과랑 비슷하구나.
於人害最毒	사람에게 해 입히는 것으로 가장 독하니
蚤蟲氣相和	벼룩이나 이와 비슷하네.
晝伏夜則動	낮에는 엎드려 있다가 밤에는 움직여
咬啣可奈何	깨물어 피를 빨아먹으니 이를 어찌하리오!
或云是盜精	어떤 이는 도둑의 정령이라고도 하니
鷄鳴竄窟窠	닭 울음소리에 소굴로 숨어버리네
荒寺與敗店	황폐해진 절과 문 닫은 가게
此物由來多	이것으로부터 많이 연유하였다네.
憶昨雙溪宿	아! 어제 쌍계에서 잠을 자는 데
爬搔誠異他	긁다보니 진실로 전과는 다르구나!
今夜四五起	오늘 밤 네다섯 번 일어나
秉燭窮搜羅	촛불을 잡고 옷을 들쭉셨네.
爛熳衾綯間	이부자리 사이 비춰보니
百千聯么麼	백 마리 천 마리 작은 것들이 우글우글
指爪誤觸破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눌러 터트리니
臭臊無以過	누린 냄새 고약하여 어찌할 수가 없네.
投之滿溺器	잡다보니 빠뜨려 죽이는 그릇에 한 가득이라
不殺理則邪	죽이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쌍계사에서 잠을 자는데 깨우는 벌레가 극성이다. 다른 벼룩이나 이와는 다르게 굽어보니 느낌이 다르다. 자다 일어나 이불을 들춰보니 벌레들이 우글거린다. 살짝 눌러보니 누린 냄새가 고약하여 눌러 잡을 수 없고 그릇에 물을 담아 놓고 빠뜨려 죽이기로 한다. 계속 잡다보니 어느새 그릇을 가득 채운다. 생활주변의 사물을 섬세하고 관찰하여 감각적 이미지의 형상화를 통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벌레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 벌레는 유래부터 자신이 겪은 고통을 고스란히 시의 소재로 삼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自序에도

내가 열네댓 살 무렵에 과거공부를 위해 시를 체득하였는데 악착같이 달려들었으나 볼만한 것은 없었다. 20살 진사가 되고 이듬해에 동쪽으로 海山에 유람을 갔는데 비로소 옛 시인들의 시에 마음을 두게 되어 억지로 백십 편을 지었다. 돌아와 한두 어른들께 질정해본 후에야 잘못 지었음을 알게 되어 드디어 모두 불태워버렸다. (중략) 매번 입으로는 위우고 마음으로는 생각하여 손은 춤추고 발은 뛰는 경지에 이르렀고, 한 구나 반 구 근사한 것을 얻으면 남몰래 기뻐하였는데,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문득 놀라서 기특하게 여겼다.²²⁾

어렸을 때에는 과거공부를 위한 시에 악착같이 매진했지만 돌이켜보니 단지 시험을 위한 공부였을 뿐 진정한 시가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새롭게 시에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일상생활에서부터 한구 반구 지어나가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놀랄만큼 자유롭게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李奎象(1727-1799)이 엮은 『并世才彦錄』에서도 그의 시에 대한 평가를 찾을 수 있다. 이규상은 沈翼雲의 시가 “맑고 흠뻑 젖어 넘치며 문장이 줄줄 풀리어 유창하다(淋漓紆餘)”²³⁾하여 ‘비떨어지고 어긋난[拗乖]’ 오늘

22) 沈翼雲, 『百日詩集』, 「序」, “吾年十四五時, 學爲科體時齷齪無可觀. 弱冠成進士, 明年東遊海山, 始有意古作法者之詩, 強爲時百十篇. 歸以質之一二長老, 而後知其非遂盡焚棄之……每口誦心思, 手舞足蹈得, 一句半句似者, 窃窃然自喜, 出以示諸人 輒驚駭以爲神.”

23) 李奎象, 『并世才彦錄』, 『韓山世稿』 卷29. “翼雲詩 淋漓紆餘, 不似今之拗乖

날의 시들과 다르다고 하였다. 비뚤어지고 어긋난 오늘날의 시는 沈翼雲이 과거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일상적인 소재가 아닌 경전을 비롯한 전적에서 典故를 취하고, 문어체의 어휘와 고상하고 진지한 감정, 의지, 체험 등을 노래해야 한다는 통념에 의거한 作詩法을 따른 시이다. 여기에 인간의 자연스런 情을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다. 현실주의적인 심미관을 바탕으로 생활의 정감을 표현하니 ‘맑고 넉넉한[淋漓紆餘]’ 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V. 나오는 말

沈翼雲은 문학적 재능은 뛰어났지만 가문의 허물로 인하여 자신의 재주를 펼치지 못하고 문단에서 사라졌다. 그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더욱이 젊은 시절에 쓴 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일상의 주변에 관심을 갖고 시로 형상화하였다. 비록 身廢流離의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추구하였다. 즉, 처한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추구했으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淋漓紆餘한 문학세계를 구축하였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으려 노력한 그는 ‘문학은 진리를 담아야 한다.’는 문학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범한 삶 속에서 훌륭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배지에서 삶을 마감하고 젊은 나이에 쓰여진 시가 대부분이어서 문학사적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成大中(1732-1812)도 「청성잡기」에서 才勝薄德의 선비로 칭하였으며 李家煥이나 盧兢 보다 沈翼雲의 재주가

語.”(李奎象 지음·민족문화사 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앞의 책에서는 “淋漓紆餘”를 “맑고 넉넉하다”라고 풀이했다.)

뛰어났음²⁴⁾을 증언하고 있다. 아직 학계에서 그의 시문학 연구가 미진하여 세밀하게 조망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외연을 넓혀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

24) 成大中, 『青城雜記』 卷5, 「醒言」, “沈翼雲, 絕世才也. 其父一鎮, 凡庸人也, 生子三人, 長翔雲, 仲翼雲, 季領雲. 自相師友, 詩文皆妙, 而翼雲最奇. 翔翼俱舉大小科, 以家累不得志於世, 翼雲忿之, 遂斫一指, 以矢自廢. 其詩益感慨險僻, 多怨懟不平之音, 愛才者多憐之. 卒以翔雲之累, 謫死濟州, 翔雲則誅. 正宗愛養人材, 毛髮絲粟之能, 皆見用於世, 而獨翼雲兄弟, 爲才所使, 不能安坐而俟禍, 實自取也. 大抵勝德之才, 必爲身災, 李家煥憚盧兢, 兢憚翼雲, 家煥之博洽, 兢所不及, 而超詣則勝之, 翼雲之才, 又居其右, 然家煥以邪逆誅, 兢坐事配渭原, 宥還, 竟死於餓, 翼雲亦謫死, 皆以才至此. 翼雲與余無雅, 而見余頌於金坯窩所, 評批甚盛, 余亦記其易贊, 雖非知易, 而文則甚奇, 非俗士所可能也.”

<參考 文獻>

- 沈翼雲, 『百日集』, 서울대학교 奎章閣, 청구기호 奎 7339.
- 李奎象, 『韓山世稿』 卷29, 『并世才彥錄』.
- 李奎象 지음·민족문화사 연구소 한문학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 : 병세재연록』, 창작과 비평사, 1997.
- 『英祖實錄』 『正祖實錄』
- 김우정, 「심익운(沈翼雲)의 「說文」과 산문세계」,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김철범, 「芝山 沈翼雲의 삶과 文學」,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 태학사, 1996.
- 안대회, 「18세기 漢詩史 序說」, 『韓國漢詩研究』 6호, 한국한시학회, 1998.
- , 「좌절한 영혼의 독설 : 沈翼雲의 소품」, 『문학과 경계』 5호, 문학과 경계, 2002.
- ,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조선후기 소품문의 실제』, 태학사, 2003.
- 이경수, 『漢詩四家の 清代 시 수용 연구』, 태학사, 1999.
- 진재교, 「조선후기 현실주의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 『민족문화사강좌상』, 창작과비평사, 1995.

Abstract

*Analysis on the Embodiment Aspects of Sim Ik Un's Poems / Shim Eui Shick**

This article examines the embodiment aspects of Chinese poems written by Jisan Sim Ik Un(芝山 沈翼雲 (1734-)), a literary man of late Joseon period. He was born in a prominent family and was talented enough to be appointed as Ijohwarang when he was quite young. He was a youth with such promising future. However, he lost his office with severe berate for disturbing ethics due to his wrong deeds regarding ancestral issues and became involved in the crime of punishment to end his life in the place of exile. His work collections are 『Baekiljip(百日集)』 of two volumes and two copies only collecting his poetry and prose written up to his age of 34 before his exile. The poetry contained in 『Baekilsijip(百日詩集)』 are just 300 or so, but they show his achievements and status as an author very well.

He was destined to the misfortune of Sinpyeyuri(身廢流離)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existing social order and express metaphorically his inner pain and anguish with various objects around him. He could pursue his own unique poetic world by expressing his personal experience and inner world authentically. Also, realizing the composition of Chinese poetry should never be restricted by the norms, laws, or poetic nostalgia, he used materials around him to criticize the world he viewed allegorically.

Sim Ik Un pursued a positive and active life rather than coping with the situation he was in passively. Considering and deliberating on the true value deeply, he established a fluent literary world full of clearance and absorption and a flood of sentences. Always trying to find true beauty from various

* Yong In Information High School, Teacher / wnrekd@hanmail.net

aspects of life that could be easily seen around us, he advanced a step forward from the literary view of 'Literature should contain the truth.' and showed wonderful value could be provided in ordinary life.

【Key words】 Sim Ik Un, Baekiljip, Sinpyeyuri, Imriuyeo, authenticity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6일